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제 12 호 2008년 9월 24일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 Letter

## 목 차

1. 9월 24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08년 총회 개최
2. 9월 17일 자문위원회 개최
3. MDG 심포지움 개최
4. 9월 11일 운영위원회 개최
5. Caring for Climate: A Business Leadership Platform
6. 11월 11일(화) COP 워크숍 개최 예정
7. Local Trend
8. World Trend
9. 회원 활동 동정 및 신규 가입사
10. 회비 안내 및 기타 사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0번지 한남타워 103호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mailto:ungckorea@gmail.com) HP: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News Letter

## 1. 9월 24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08년 총회 개최

**주 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례 총회  
**일 시:** 9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 소:** 전경련 3층 국제회의실  
**참석대상:**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대표이사 외 1명)  
**Objectives:**  
 - 연례 총회로서 GCKN의 2008년 활동 내역과 2009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관 및 이사진 변경을 의결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Opening Speech: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남승우  
 14:10-15:40 본회의  
 1) 주요업무실적 및 중간 결산 보고  
 2) 감사 중간 보고  
 3) 사업계획안 보고  
 4) 정관 변경: 정관 변경에 대한 설명 및 의결  
 5) 이사진 변경: 이사직 사임 및 선출, 임명 의결  
 6) UNGC 연구센터 설립 진행상황 보고  
 7) 기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 9월 17일 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9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 바인에서 제 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 참석자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남승우 회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부회장
- 국무총리실 백주현 심의관
- 외교통상부 오준 다자외교실장
- 지식경제부 조석 산업경제정책관
- 환경부 김찬우 국제협력 본부장
- 인권위원회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
- 권익위원회 정기창 부패방지부장
- 한국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본부상무
-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국제협력파트장
- 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Zhe Yang 대표

## I. 회의 아젠다 및 일정

|             |  |
|-------------|--|
| 11:00-11:10 | 회장 환영인사  |
| 11:10-11:15 | 자문위원 소개  |
| 11:15-11:40 | 사무총장 협회 활동 상황 보고 및 설명<br>1) 활동현황<br>2) 2009년 및 중장기 활동 계획 |
| 11:40-12:00 | 자문위원 의견 제시, Q&A  |
| 12:00-13:30 | 오찬   |

## II.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정부 및 경제단체의 참여로 개최 되었음. 남승우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철기 사무총장의 현황 및 계획 소개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UN 글로벌콤팩트 관련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음.

남승우 회장은 특히 부패 지수 개선을 사업 목표의 하나로 제시함. 외교통상부 오준 다자외교조약실장은 내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외교통상부가 협력하여 UN 및 ODA 조달 관련 심포지움 개최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인권위원회의 나영희 인권교육본부장은 12월 2일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권 6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소개하였음.

또한 지식경제부 조석 산업경제정책관은 지경부의 governance, 기후 변화 대응, 노사 관계 업무와 UNGC 업무의 유관성을 지적함. 지식경제부에서 올해 초에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였음을 소개하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음. 그에 더하여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구조를 어떻게 조화시키며 성장을 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함. 환경부의 김찬우 국제협력 본부장은 민간 부문의 활동에 있어서 환경 기준이 더 다양해졌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행성과보고서(COP)의 수준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권익위원회의 정기창 부패방지 부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반부패 워크숍 등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이 권익위원회의 방향이므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방향과 일치하는 점이 많아 함께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함. 국무총리실의 백주현 심의관은 에너지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을 모범적인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한국무역협회 김재숙 상무는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제에 대해 경제 단체와 UNGC 협회 간 공동회의 개최 등 시너지 제고를 희망함.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국제협력파트장은 중앙회 회지(5만 회원)에 UNGC 활동 설명 기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함.

UNDP 한국대표부의 Zhe Yang 대표는 한국협회의 빠른 발전에 대해 유엔에서도 놀라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협회가 민-관 파트너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부문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자문위 설립이 다른 지역 네트워크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자문위는 앞으로 연간 1-2회 정도 개최되며, 조직 형식은 유연한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

### 3. MDG 심포지움 개최

2008년 9월 8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03호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새천년개발목표(해외사회공헌-기업의 블루오션인가?)’라는 주제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개발 NGO, 관심 기업, 정부 및 유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DG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MDG 심포지움 프로그램

| 시간          | 발표주제   | 발표자   |
|-------------|--|---|
| 09:30-10:00 |  | 등 록   |
| 10:00-10:20 | Opening Speech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br>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대표 Zhe Yang          |
| 10:20-11:20 | MDGs and Role of Private Sector<br>PPP 구축방안<br>MDGs and ROK's Role | UNDP 경제정책 전문가 김남석<br>외교부 개발협력 과장 김형태<br>KOICA 정책연구실 연구원 이현주 |
| 11:20-12:00 | Panel Discussion/<br>Q&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팀장 권을<br>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윤현봉                 |
| 12:00-13:30 |  | 점 심   |
| 13:30-15:10 | 국내기업 해외공헌 사례발표   | SK텔레콤 사회공헌 팀장 고창국<br>유진크레베스 대표이사 문영기                        |
|             | 다국적기업 해외공헌 사례발표  | Pfizer 대외협력부 전무 이진<br>P&G 대외업무총괄 이사 최병욱<br>MS 시티즌십 상무 김은현   |
| 15:10-15:30 |  | Coffee Break  |
| 15:30-15:40 |  | 회원사 앙케이트 조사결과 발표  |
| 15:40-16:30 | Panel Discussion/<br>Q&A   |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 곽정수, 전경련<br>사회협력 본부장 양세영, 호서대 교수 양용희           |
| 16:30-16:40 |  | 회의 결과 정리 및 건의 채택  |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새천년개발목표 (해회사회공헌-기업의 블루오션인가?)

##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새천년개발목표 심포지엄 개최

- ① 일 시: 2008년 9월 8일, 오전 10:00~오후 5:30
- ② 장 소: 서울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 센터 330호
- ③ 주 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새천년개발목표(해회사회공헌-기업의 블루오션인가)
- ④ 주 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대표부
- ⑤ 후 원: 외교통상부
- ⑥ 참 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 개발 NGO, 관심 기업, 정부 및 유엔 관계자
- ⑦ 내 용: 올해 2008년은, 지난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189개국 정부 대표들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2015년 목표 달성 중간 시점임.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은 MDGs 의 빈곤감소, 보건 및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의 8가지 목표와 맞닿아 있음.

## \* Session 1(10:00~12: 20)

### 1. ‘MDGs and Role of Private sector’ : UNDP 뉴욕본부 김남석 박사

- ‘모든 이를 위한 가치의 창출-저소득층과의 사업전략’이라는 UNDP 보고서를 소개하며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 성공적인 수익을 올린 기업들의 사례와 전략을 발표함. 이는 2015년까지의 MDGs 달성을 위한 platform이 될 것이라고 봄.

### 2.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 방향’ : 외교통상부 김형태 개발협력과장

- 한국의 ODA 확대 계획, PPP(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필요성, PPP 구축 기본 방향(정부-기업-수원국 간 win-win 효과 제고), 모범 사례(스타벅스, Tetra Pak, 영국 기금 운용 등), 향후 PPP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함.

### 3. ‘MDGs와 한국의 역할’ : KOICA 정책연구실 이현주 연구원

- MDGs의 배경, 구성과 특징, 중간 이행 현황을 살펴 보고 MDGs의 목표 구축에 대한 한국의 노력, MDGs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함. 빠른 시간 내,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이 구체적, 포괄적으로 해외 원조 사업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Panel Discussion과 Q&A

### 1. 한국대외정책연구원 권을 ODA 팀장

-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기업-공공 부문간 협력 프로그램들이 풍부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서 이러한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사업들에 대한 창의적인 모색도 필요해 보임. 많은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기금 마련, 국민 의식 변화 등 해외 원조에 대한 저변이 마련될 것이라고 함.

### 2. 한국해외원조단체연합회 윤현봉 사무총장

- 현재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의 PPP에 대한 인식이 미비함. 그러나 작지만 해외사회공헌이 삼성, 현대 등 일부 기업들에 의해 선도되고 있고 앞으로 기업들 이외에도 다른 민간 부문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PPP의 구축과 역할이 기대됨.

이어진 Q&A Session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같은 CSR 관련 국제기구들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NGO와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정부가 제공하는 matching fund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마지막으로 PPP의 주도권은 정부나 기업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비율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지에 대한 발표자, 패널리스트, 청중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Session 2 (1:30~5:00)

국내기업의 해외공헌 사례 발표

1. 'SK텔레콤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 : SK텔레콤 고창국 사회공헌 팀장

- 사업관련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베트남 시에서는 교육 인프라 지원을, 중국에서는 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과 긴급구호를, 몽골에서는 유목민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
- SKT 사회공헌 활동은 단기적인 시장확대 효과보다는 진출국가의 중장기적인 파트너 관계 정립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2. 'Quality in your life' : 유진크레베스(주) 문영기 대표이사



- 의료(심장병어린이 치료 및 병원설립), 한국어교육, 태권도 같은 공헌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지역민들의 빈곤탈출을 돕는 목적으로 베트남, 라오스, 중국, 필리핀 등 지역에서 MDGs와 연계된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음
- 회사 내외적으로 직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고취를 통해 현지직원들의 신뢰도와 협조가 강화되고 화재 방지 등 회사 위기극복의 큰 힘이 되었고,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수출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

다국적기업 해외공헌 사례 발표

1. 'Pfizer's CSR' : 한국 Pfizer 대외협력부 이은정 차장

- Pfizer의 전략적 접근 방법은 'Treat, Teach, Build, Serve'임
- 이러한 모토 하에 베트남, 캄보디아, 세네갈, 가나, 케냐 등지에서 International Trachoma Initiative (맹인 예방 프로그램), Diflucan Partnership 프로그램(에이즈/HIV 예방 프로그램), 말라리아 퇴치 운동, 감염성 질환 연구소, Global Health Partnerships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2. 'P&G Live, Learn and Thrive' : 한국 P&G 최병욱 대외업무총괄 이사

- 전 세계 어린이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며(Pure Project), 중국의 희망 학교 사업 등을 전개하고, 8천만명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함
- 전 임직원, 외부 기관, 전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

3.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시민활동' : 한국 Microsoft 김은현 시티즌십 상무

- MS의 핵심 기업시민활동: 자사 비즈니스와의 결합
- Microsoft사가 교육 혁신, 지역 사회의 혁신 촉진, 일자리와 기회의 창출이라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Unlimited Potential' 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 비전과 전략을 소개



Panel Discussion과 Q&A

1. 한겨레 광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임. 지난 1년간 급성장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처럼 기업의 사회공헌도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중국 정부가 2006년 이래 CSR경영을 의무화 하였음을 주목해야 함.
-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극히 일부분야이며 이에 대해 기준확립이 필요함. 파트너십 측면에서도 자원을 가진 기업과 전문성을 가진 NGO간의 불신을 버리고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전경련 양세영 본부장

- 국내, 국외 사회 공헌 간 balance가 필요함.
- 국내기업의 공헌은 이제 초기단계임. 신 사업 기회는 장기적으로 모색되는 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외국 기업 상황과는 달리 국내기업은 P&G, 코카콜라의 물 분야 공헌 사업같이 주력사업과의 연관을 통해 선명하고, 장기적인 투자, 공헌활동이 필요함.
- 현지 NGO와의 수준 높은 파트너십이 요구되며, 기업의 노력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이해도 절실히 기대됨.

3.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양용희 교수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유진크레베스 같은 중소기업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Corporate Citizenship을 넘어 Global Citizenship의 개념을 가지고 환경윤리 분야와 사회공헌의 관계를 함께하고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기업내 전문가 및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함. 국제적 CSR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며 컨설팅 회사들의 난립도 문제가 되며,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함.
-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내야 함.

4. 주철기 사무총장

- 우리 기업들의 해외 공헌 사업 분야를 회사의 주력 사업 부문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감함
- 아프리카권 등 빈곤 지역에도 새로운 소비, 이윤 창출의 사업 기회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번 회의가 그런 인식 전환의 화두를 던졌으면 함.
- 국내 전문가를 List-up하고 대외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역시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준비, 기획하고 있으며 기업, 시민 사회, 정부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함.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 Global Compact & MDGs” Symposium  
2008.09.08

4. 9월 11일 운영위원회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는 9월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철기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5명이 참석하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특별히 영국 IBLF(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의 Asia Pacific Director인 Peter Brew씨와 Asia Programme Director인 Chris Leung씨가 참석, IBLF 활동 설명 및 앞으로 한국-영국 간 CSR 분야의 가능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5. Caring for Climate : A Business Leadership Platform



제네바 UN본부에서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Caring for Climate: A Business Leadership Platform'이라는 제목 하에 첫번째 회의를 개최합니다. 'Caring for Climate'는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기업체와 정부 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규명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최근 5월 이후 약 80여개의 기업이 'Caring for Climate'의 참여를 위해 서명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한 개 기업만 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참여 기업이 매우 적습니다. UNGC 본부 측의 각별한 요청이 있으며, 정부의 Green Growth 정책과도 연관되는 바이니, 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7. 11월 11일(화) COP 워크숍 개최 예정

저희 한국협회에서는 2008년 11월 11일(화) 제 4차 COP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결정되면 회원사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6. Local Trend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 '한국의 녹색 성장 개척자들 31인'에 선정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로 인해 요즘 '녹색 성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주관 하에 16일의 각계 각층의 환경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 전문기구 종사자 부문에서 4인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주철기 사무총장도 포함되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 130여 곳의 기업, 사회단체, 공공기관에 노동, 인권, 환경, 반부패 등 광의의 녹색경제 이슈를 전파하고 있다.



### 이보 더 부어 UN 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총장,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

이보 더 부어 UN FCCC 사무총장은 한국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9월 11일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녹색 기술뿐 아니라 녹색 금융에도 주목하라"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그는, 사회 각 부분이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지난 6월 한국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환경계획 금융구상(UNEP-FI),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민간이 지속가능경제에 대해 논의한 것을 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

### 윤경/미래포럼, 한동대 열린강의실 강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철기 사무총장은 9월 9일, 9월 10일 각각 한동대 열린강의실과 윤경/미래포럼에서 UNGC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UNGC의 비전, 그리고 COP 작성방법 (UNGC 이행 소개)에 대해 강연하였다. 조동성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부회장은 9월 10일 상기 윤경/미래포럼 회의에서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인 신 BEST 기준을 소개하였다.



## 8. World Trend

### CEO Water Mandate

Endorse

#### ‘CEO Water Mandate’ 에서 두번째 운영 회의를 갖다

8월 21일, 22일 양 일간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서는 태평양 연구소와 제휴하여 ‘CEO Water Mandate’의 두번째 운영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약 70명의 민간 부문, 시민단체, 유엔 사무국의 대표들과 기타 여러 주주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의 공급망 공유와 공급망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 말레이시아 글로벌콤팩트 가입

말레이시아가 8월 27일 글로벌콤팩트의 가맹국이 되면서 10개의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기업 시민의식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DiGi Communications, Talisman Energy Malaysia, Phillips Malaysia, Asian Overland Services Tours and Travel, OWW Consulting 등이 있다.

#### 마카오 개최 CSR 포럼에 한국 전문가 파견

마카오에서 JCI(Junior Chamber International) 주최로 9월 24일 개최되는 ‘2008 CSR International Forum’에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우리 협회는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을 연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CSR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게 될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전문가의 파견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 CSR과 관련된 인식과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9. 회원 활동 동정 및 신규 가입사

9월 24일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회원사는 133개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사는 란스튜디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BSEC전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삼성테스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입니다. 신규 회원사들의 가입을 축하합니다.

#### 유한킴벌리

한국경제에서 선정한 ‘2008 글로벌리더상’의 ‘사회공헌부문’에서 유한킴벌리의 김종곤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김종곤 대표이사는 현재 사단법인 미래포럼 공동대표,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이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등을 맡아 환경 보전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끌어 가고 있다.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고유의 혁신 모델인 ‘3S BEST 혁신’ 체계를 구축해 6시그마, BSC 등 선진경영시스템과 연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발전 5사 중 7년 연속 최저 발전원가 시현 및 타사 평균 판매단가 대비 연간 7,880억원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 10. 회비 안내 및 기타 사항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의 연회비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회비 안내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사의 CSR에 관한 활동을 뉴스레터의 회원 활동 동정에서 다루고자 하오니 이에 반영할 귀사의 활동 사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0번지 한남타워 103호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ungckorea@gmail.com HP: www.unglobalcompact.kr